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

목 차

■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산업	1
2.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	2
3. 시사점	12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이 부 형 동북아연구실장 (2072-6306, leebuh@hri.co.kr)
 동북아연구실 :

< 요약 >

■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산업

최근 들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고용 창출력도 크게 약화되는 등 국내 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까지 10%대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5.8%, 2010년 이후에는 1.8%로 빠르게 하락한 것이다. 또, 공산품(제조업) 부문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 원 당 20.3명에서 2012년에는 8.5명으로 급감하는 등 산업 고용 창출력도 약화되었다. 이에 국내 산업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 본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내 산업의 7대 문제점

국내 산업이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성장 동력 발굴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발전도 정체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비 10대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산업 구성을 살펴보면 IT, 수송기계, 기계, 철강제품, 화학 관련 산업들로 큰 변화가 없다. 시기별 30대 품목 변화도 2010년 이후에는 3개 품목에 불과하다. 한편, 2014년 기준 명목 GDP의 59.4%, 전산업 취업자의 70.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미국의 27.0%, 일본의 23.3%, 독일의 22.3% 정도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도 낮다.

둘째,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요 기술 경쟁력도 넷 크래킹 상태에 있다. 국내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그 수준이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중국에게는 빠른 속도로 쫓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전략 기술 수준도 한국은 미국에 4.4년, 일본에 1.6년 뒤지고 있다. 중국은 2012년 당시 한국보다 1.9년 뒤져 있었으나, 불과 2년 만인 2014년에는 1.4년으로 0.5년 단축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셋째, 대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 경쟁력도 정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3%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주요 경쟁국인 중국 12.4%, 독일 7.7%, 일본 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상품 수도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감소하였다.

넷째, 기업 경영 성과가 악화되면서 경쟁 기반의 상대적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5.3%에서 2013년 2.1%로 급락했는데, 동기간 영업 이익률도 5.3%에서 4.1%로 둔화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되었다. 한편, 동기간 일본 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회복세로 전환되고, 중국 기업

들의 경영 성과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부가가치의 대외 유출이 가속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자체 조달 비중은 1995년 62.8%에서 지속 하락하여, 2011년에는 56.6%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부가가치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였는데, 2006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해외투자 수지가 2014년에는 누적 적자 1,865.7억 달러에 이르렀다.

여섯째, 상대적으로 약한 제도 경쟁력과 반기업 정서의 확산도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144개국 중 정부규제 부담 96위, 법체계 효율성(규제개선 측면) 113위, 정책의사결정 투명성 133위 등 각종 제도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인데, 심지어 중국에도 큰 격차로 뒤쳐져 있다. 한편,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가 100점 만점에 44.7로 나타나, 2004년 하반기 44.4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일곱째, 주요 경쟁국 및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가속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Made in Japan' 재현을 꾀하고 있다. 중국도 7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유럽 지역도 산업 기술 분야 리더십 확보를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시사점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여 국내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확립, 신성장 동력 육성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 강화,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화 및 무경계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은 기존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 기반의 조속한 회복을 꾀하는 한편, 내수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로 대외 리스크에 따르는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축소시켜야 한다. **넷째,** 산업 전략과 과학기술 전략의 연계 강화, 대학 및 공공 부문의 산업 기술 기여도 확대, 지적재산권 등 혁신 성과의 권리화 및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국가 혁신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화 추진, 세제의 투자 및 노동 유인 효과 제고,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 역차별 개선, 기업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대 국민 의식 개선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1.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산업

○ 최근 들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고용 창출력도 크게 약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 산업 부가가치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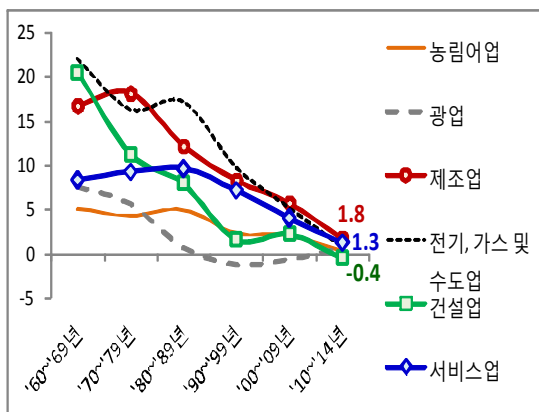
- 제조업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까지 10%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1990년대 8.3%, 2000년대 5.8%, 2010~2014년 1.8%로 빠르게 하락
- 서비스업은 동 1980년대 9.6%에서 하락세로 전환, 1990년대 7.2%, 2000년대 4.0%, 2010~2014년 1.3%로 하락
- 건설업 부가가치는 2010년 이후 마이너스대로 하락

- 산업 고용 창출력 약화

- 공산품 부문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0억 원 당 20.3명에서 2012년에는 8.5명으로 급감
- 건설 부문 취업유발계수도 동기간 23.9명에서 14.6명으로, 서비스업도 동 30.7명에서 18.0명으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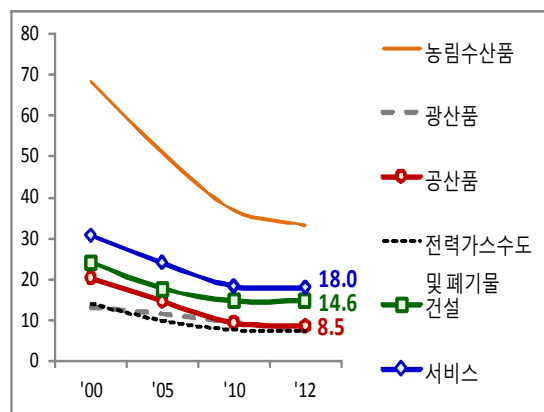
○ 이에 국내 산업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 본 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실질 기준.

< 품목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2. 국내 산업의 7대 문제

① 신성장 동력 부재 속 서비스업 발전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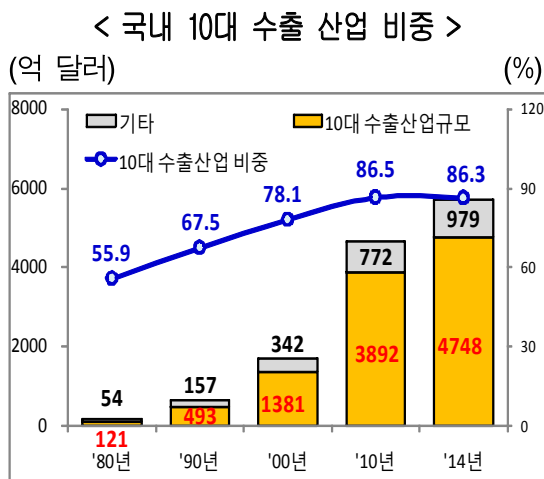
○ 국내 경제는 여전히 주요 산업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들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큰데 반해 신성장 동력 발굴이 지연되고 있음

- 10대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 80%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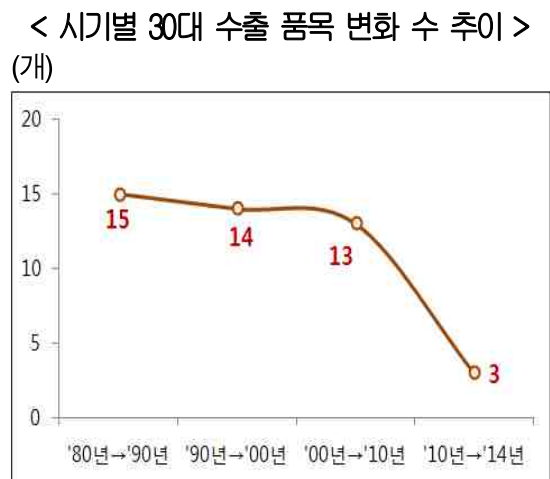
- 국내 10대 수출 산업 구성은 2000년대 들어 IT(MTI 코드, 81, 82, 83), 수송기계(동 74), 기계(동 71, 72), 철강 제품(동 61), 화학(동 21, 22) 관련 산업들로 큰 변화가 없음¹⁾
-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비 10대 수출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로 크게 확대

- 신성장 동력 발굴은 지연

- 시기별 30대 수출 품목(MTI 코드 4자리 기준)도 1980년 대비 1990년에는 15개 품목이 바뀌었으나, 점차 축소되어 2010년 이후에는 3개 품목(동 8343 인 쇄회로, 7111 원동기, 6141 철강관)에 불과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MTI 코드 2자리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MTI 코드 4자리 기준.

1)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코드는 산업분류를 반영한 상품분류로 과거 상공부에서 개별품목의 가공단계를 반영한 상품분류인 HS(Harmonized System; 국제상공회의소에서 구분한 국제관세무역표준분류) 코드와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UN 경제사회이사회 분류 기준)의 분류를 보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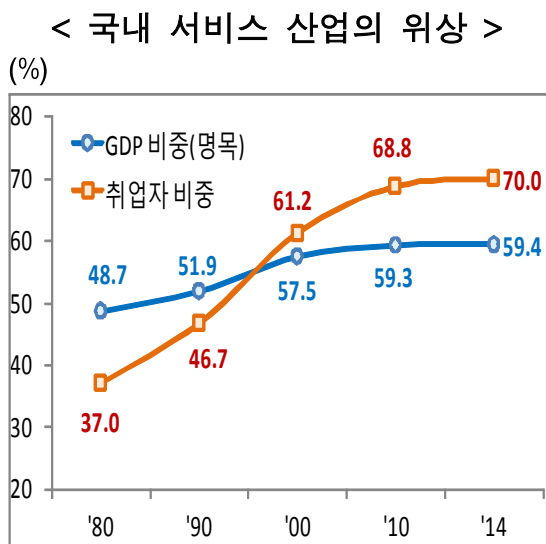
○ 서비스업의 경우, 국내 경제 위상에 비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음

-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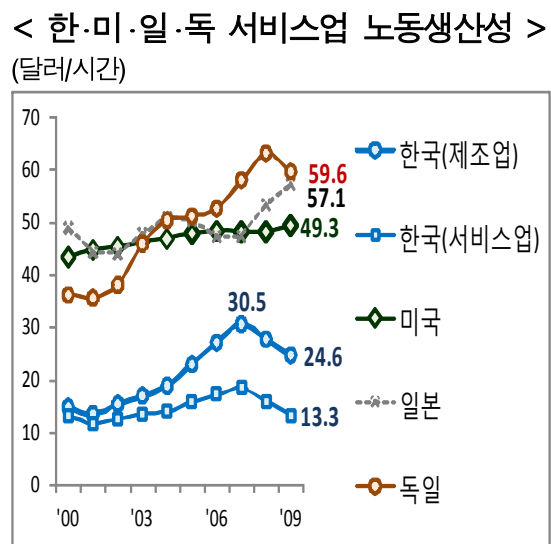
- GDP(명목)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1980년 48.7%에서 2014년 59.4%로 빠르게 확대되었음
- 이와 함께 국내 서비스업이 전산업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37.0%에서 70.0%로 두 배 이상 증가

- 열악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 이하 동일)은 2007년 1인당 18.4달러가 최고 수준으로 2009년에는 13.3달러로 하락
- 이는 2009년 기준 미국 동 49.3달러의 27.0%, 일본 동 57.1달러의 23.3%, 독일 동 59.6달러의 22.3% 수준에 불과
- 한편,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09년 1인당 24.6달러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54.1% 정도임



자료 : 통계청.
주 : 건설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제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OECD, EU-KLEMS, 한국은행 통계 이용)
주 : 노동생산성=부가가치/피고용자 총근로 시간(2005년 불변가격).

② 비효율적인 혁신시스템 하에 넷 크래킹 상태의 과학기술 경쟁력

○ R&D(연구개발)투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으나,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은 주요 경쟁국에 뒤지고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

-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3년 4.15%로 1위, 인구 천명 당 연구원 수도 12.4명으로 핀란드 14.5명, 덴마크 14.0명에 이어 높은 수준

- 경쟁국 대비 낮은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

- 절대적 지표로 볼 때 한국의 투입 효율성은 2013년 0.9로 2005년에 비해 하락, 중간활동 효율성도 2013년 0.8로 하락
- 상대적 지표로 볼 때도 한국의 투입 효율성은 2013년 0.5로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 중간활동 효율성도 2013년 0.6으로 낮아졌음
- 이 결과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은 일본과 독일에 크게 못 미치고, 중국에는 쫓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한·중·일·독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 비교(한국 2005년=1.0) >

구분		2000	2005	2010	2013	
절대적	투입 효율성 ($\frac{\text{성과지수}}{\text{투입지수}}$)	한국	1.1	1.0	0.9	0.9
		중국	0.2	0.3	0.4	0.4
		일본	0.4	1.3	1.8	1.9
		독일	0.6	1.3	1.3	1.6
지표	중간활동 효율성 ($\frac{\text{성과지수}}{\text{중간활동지수}}$)	한국	1.4	1.0	0.8	0.8
		중국	0.9	0.9	0.8	0.7
		일본	0.5	1.2	1.5	1.4
		독일	0.4	0.8	1.0	1.3
상대적	투입 효율성 ($\frac{\text{성과지수}}{\text{투입지수}}$)	한국	1.5	1.0	0.6	0.5
		중국	2.2	1.4	0.9	0.7
		일본	0.4	0.9	1.2	1.2
		독일	0.7	1.2	1.0	1.2
지표	중간활동 효율성 ($\frac{\text{성과지수}}{\text{중간활동지수}}$)	한국	1.4	1.0	0.7	0.6
		중국	3.1	2.0	0.7	0.5
		일본	0.6	1.0	1.2	1.0
		독일	0.3	0.5	0.6	0.8

주 : 1) 한국 과학기술 경쟁력 지수 대비 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지수를 이용하여 효율성 측정.
2) 효율성은 성과지수를 투입지수로, 성과지수를 중간활동지수로 나누어 계산함.

<참고> 한·중·일·독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 분석 지표 및 방법

○ 분석지표

- 상대적 지표

· 투입에서 GDP 대비 R&D 투자 비중,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등 2가지 지표를, 중간활동과 성과 측면에서는 각각 연구원 1인당 PCT 건수, 과학논문 편수 등과, R&D투자 대비 하이테크 산업 수출 및 지적재산권 수출 비중 등으로 비교

- 절대적 지표

· 투입에서 R&D 투자 규모, 연구원 수 등 2가지 지표를, 중간활동과 성과측면에서는 각각 PCT출원 건수, SCI급 등 과학논문 편수 등과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과 지적재산권 수출액 지표를 비교

○ 분석 방법

- 경쟁력 지수 : 한국 과학·기술 대비 중국, 일본, 독일 과학·기술경쟁력 평가는 한국을 기준(2005년=100)으로 투입, 중간활동, 성과 등 3가지 분야를 총 12개 절대적, 상대적 지표로 나눠 비교함

- 효율성 분석 : 투입 효율성(성과지수/투입지수)과 중간활동 효율성(성과지수/중간활동지수)으로 나누어 분석

<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분석 지표 >

구분	구성	세부지표	출처
상대적 지표	투입지표	GDP 대비 R&D 투자	OECD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OECD
	중간활동 지표	연구원 1인당 PCT 출원 수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ECD
		연구원 1인당 과학 논문 편 수	National Science Foundation, OECD
	성과지표	R&D 투자 대비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	OECD
		R&D 투자대비 지적 재산권 수출액	World Bank, OECD
절대적 지표	투입지표	총 R&D 투자 규모	OECD
		총 연구원 수	OECD
	중간활동 지표	PCT 출원 건수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과학 관련 논문 편 수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성과지표	하이테크 산업 수출액	OECD
		지적 재산권 수출액	World Bank

○ 국가 전략 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등에는 크게 뒤지는 반면,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는 등 과학 기술력도 넷 크래킹 상태에 있음

- 넷 크래킹 상태의 국가 전략 기술 수준

- 국가 전략 기술 전체로 볼 때 2012년 대비 2014년 한국은 미국과 4.4년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도 1.6년의 격차가 있음
- 반면, 동 중국은 2012년 당시 한국보다 1.9년 뒤져 있었으나, 불과 2년 만인 2014년에는 1.4년으로 0.5년 축소시킴

-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 2014년 기준 10대 중점기술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에 앞서 있음
- 하지만, 최근 2년 간 중국은 건설교통 1.0년, 바이오 0.8년, 전자·정보·통신 0.6년 등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축소시켜 오고 있음

< 10대 분야별 주요국 기술격차 >

(년)

구분	한국	일본	중국	한국중국		한국일본	
				2014년 (‘12년 대비)	2012년 (‘10년 대비)	2014년 (‘12년 대비)	2012년 (‘10년 대비)
국가전략기술 전체	4.4	1.6	5.8	-1.4	-1.9	2.8	3.1
전자·정보·통신	2.7	1.5	4.5	-1.8	-2.4	1.2	1.3
의료	4.0	2.1	5.5	-1.5	-1.9	1.9	2.2
바이오	4.5	1.7	6.2	-1.7	-2.5	2.8	3.1
기계·제조·공정	3.3	0.8	5.0	-1.7	-2.3	2.5	2.7
에너지·자원· 극한기술	4.6	1.7	5.5	-0.9	-1.3	2.9	3.3
항공 우주	9.3	4.8	5.0	4.3	4.5	4.5	5.4
환경·지구·해양	5.0	1.3	8.3	-3.3	-2.9	3.7	4.1
나노·소재	4.1	1.3	5.2	-1.1	-1.2	2.8	3.4
건설·교통	4.3	0.7	6.1	-1.8	-2.8	3.6	4.0
재난·재해·안전	6.0	1.8	7.6	-1.6	-1.9	4.2	4.2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주 : 미국=100 기준, 2012년 대비 2014년 기술격차.

③ 대외 경쟁 심화 속 수출 경쟁력 정체

○ 최근 들어 대외 경쟁 심화로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정체되고,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상품 수가 감소하는 등 수출 경쟁력이 정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 하락도 우려

- 정체되고 있는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 이후 3%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12.4%, 독일 7.7%, 일본 3.6%에 비해 낮은 수준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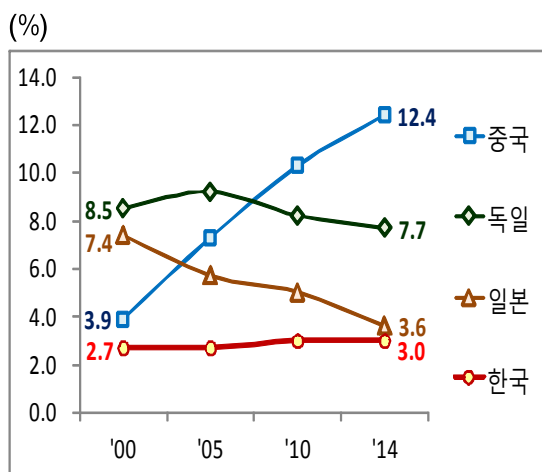
-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상품 수 감소

·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 수도 한국은 2009년 73개에서 2013년 65개로 감소
· 한편, 중국은 2013년 1,538개, 독일은 733개, 일본은 186개로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제조업 경쟁력도 하락

·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2010년 세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 5년 후에는 6위가 될 것으로 전망²⁾

< 한·중·일·독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



자료 : WTO.

< 한·중·일·독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 >

(개)

구분	중국	독일	일본	한국
2007년	1,210	892	251	62
2008년	1,256	883	235	58
2009년	1,231	850	230	73
2010년	1,351	761	250	71
2011년	1,417	774	229	61
2012년	1,475	701	230	63
2013년	1,538	733	186	65

자료 : 무역협회, UN Comtrade.

2) Deloitte, Council on Competitiveness,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각년도.

④ 기업 경영 성과 악화

○ 한국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국 기업들의 경영 성과와 격차가 발생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경쟁 기반의 상대적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악화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성과

·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 15.3%에서 2013년 2.1%로 급격히 하락, 매출액 영업 이익률도 동기간 5.3%에서 4.1%로 둔화되는 등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악화

- 경쟁국 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회복세

· 일본 기업들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은 2011~2012년 2년 동안 마이너스 수준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2.5%를 기록, 플러스 증가세로 전환. 매출액 영업 이익률도 2011년 2.8%에서 2013년에는 3.5%로 상승
 · 중국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2012년 11.0%까지 하락하다 2013년에는 11.4%로 소폭이나마 회복

< 한중일 전산업 기업경영성과 - 성장성과 수익성 >

(%)

구 분		'10	'11	'12	'13
매출액 증가율	한국	15.3	12.2	5.1	2.1
	중국	42.5	27.6	11.2	9.9
	일본	1.3	-0.3	-0.5	2.5
매출액 영업 이익률	한국	5.3	4.5	4.1	4.1
	중국	12.8	11.8	11.0	11.4
	일본	2.8	2.8	2.9	3.5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일본 재무성 「Financial Statements Statistics of Corporations by Industry, Annually.」,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⑤ 부가가치의 대외 유출 가속 속 산업 공동화 우려 고조

○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외 부가가치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부가가치의 대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도 급증하는 등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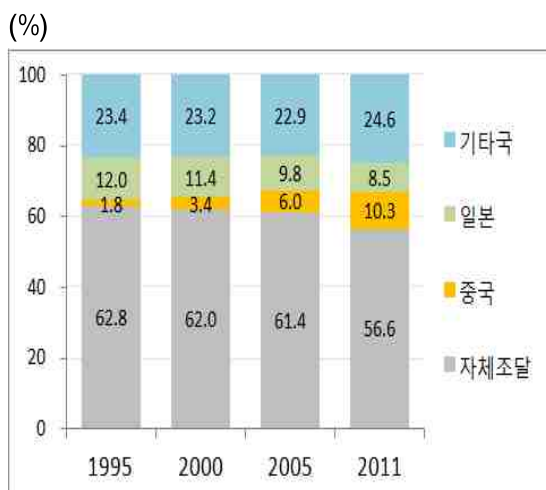
- 부가가치의 대외 유출 가속

-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자체 조달 비중은 1995년 62.8%에서 지속 하락, 2011년에는 56.6% 수준
- 이는 국내 기업의 대 중국 부가가치 의존도가 1995년 1.8%에서 2011년 10.3%로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르는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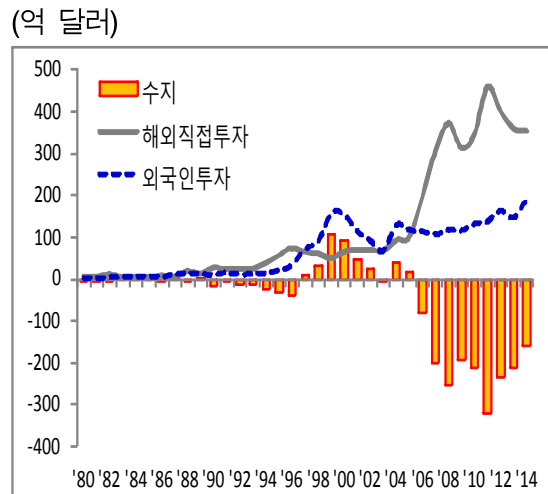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 98.1억 달러에서 2006년 193.9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해외투자 수지가 악화
- 한국의 해외투자 수지는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적자(81.4억 달러 적자) 전환되어 2014년(160.1억 달러 적자)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 기간 누적 적자 규모는 1,865.7억 달러에 이름

< 한국의 국별 부가가치 의존도 >



자료 : WIO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신고기준.

⑥ 빈약한 제도 경쟁력 속 반기업 정서의 확산

○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반기업 정서마저 확산되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빈약한 제도 경쟁력

- 한국의 경우, 전체 144개국 중 정부규제 부담 96위, 법체계 효율성(규제개선 측면) 113위, 정책의사결정 투명성 133위, 투자에 대한 세계 인센티브 효과 106위, 노사협력 132위, 노동에 대한 세계 인센티브 효과 113위 등 각종 제도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
- 이는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심지어 중국과도 큰 격차로 한국이 뒤쳐져 있음

- 반기업 정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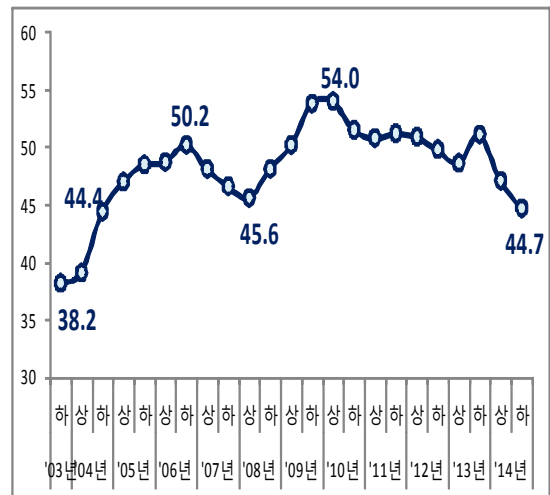
- 2014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³⁾는 100점 만점에 44.7로 2004년 하반기 44.4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 한·중·일·독 제도 경쟁력 비교 >

구분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정부규제 부담	19	55	64	96
법체계 효율성 (규제개선면)	47	12	19	113
정책의사결정 투명성	33	22	11	133
투자에 대한 세계 인센티브 효과	44	36	71	106
노사협력	58	19	6	132
노동에 대한 세계 인센티브 효과	36	67	61	113

자료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2014-2015*.
주 : 144개국 중 순위임.

< 국내 기업호감지수 추이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연구원.
주 : 100점 만점 기준.

3) 기업호감지수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윤리경영, 생산성, 국제경쟁력, 사회공헌 등 5대 요소를 합산하여 추정하는데, 100점에 가까울수록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⑦ 주요 경쟁국 및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가속

○ 최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 경쟁국 및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가속, 국내 산업 경쟁력의 상대적 악화 우려 고조

-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
 - 미국 제조업 부활 계획(2009년),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2011년),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전략계획(2012년) 등을 추진
 - 특히,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혁신 국가네트워크 프로그램 제안(2012년)은 물론 최첨단 제조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지역 허브 구상은 물론 법인세 개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이전 장려책 추진 등 제조업 부활을 위해 적극 노력
- 일본은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Made in Japan' 재현을 꾀함
 - 아베정부는 긴급구조개혁프로그램(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고용제도 개혁 및 인재력 강화,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사회 실현, 입지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의 혁신 등 6대 전략으로 구성된 산업재흥플랜을 추진 중
- 중국도 7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음
 -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
- 유럽도 Horizon 2020(2014~2020)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시켜 산업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 국가별로는 핀란드는 국가기술프로그램, 독일은 첨단기술전략 2020; Industry 4.0, 영국은 성장계획 등을 통해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유럽 내 국가들의 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도 강화되고 있음

3. 시사점

-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여 국내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함
- 우선,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 추진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시급
 - 신성장 동력 육성에는 무엇보다 관련 컨트롤 타워 확립을 통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또, 선택된 신성장 동력 부문에 투자와 혁신 노력 등의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나 법·규제 등의 정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함
- 다음으로, 기존 산업은 물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 노력이 필요
 -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화·무경계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고령화 대응형 서비스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완화, 의료 및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의 경우, 기술과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 기반의 조속한 회복을 꾀해야 함
 - 한편, 내수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대외 리스크에 따르는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축소시켜 나가야 함

- 또, 국가 혁신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산업 경쟁력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산업 전략과 과학기술 전략의 연계 강화, 대학 및 공공 부문의 산업기술 기여도 확대, 지적재산권 등 혁신 성과의 권리화 및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혁신 능력 제고 등을 통해 국가 혁신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함
 -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화 추진, 세제의 투자 및 노동 유인 효과 제고,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 역차별 개선, 기업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대국민 의식 개선, 합리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노사정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동북아연구실 이부형 이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